

## 버클리大學

金 基 牧  
(高麗大 統計學科)

### I. 버클리大學의 주변

흔히 ‘버클리’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주립 대학 버클리분교는 샌프란시스코灣의 동쪽 버클리언덕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오후가 되면 학교 건물에서도 灣의 입구를 가로지르는 금문교 아래로 미평양으로부터 灣으로 안개가 기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灣의 서쪽 건너편에 위치한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는 灣의 東西를 잇는 장장 6km 길이의 灣橋(Bay Bridge)를 건너 차로 20분 거리, 그리고 灣의 南端에 위치한 스텐포드대학과 실리콘계곡까지는 약 한 시간 거리가 된다. 캠퍼스가 자리잡은 버클리市는 지난 50년간 인구변화가 거의 없는 주거·교육도시로 현재의 주민 11만명 중 거의 8만이 버클리학생 또는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학도시이다.

이 市의 동북쪽 버클리언덕이 시작하는 기슭에 자리잡은 캠퍼스는 미국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협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캠퍼스 건물들이 버클리언덕의 天惠의 景觀 안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을 일러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할 하지만 ‘가장 어평다’는 것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불려도 좋을 만큼 아름답다는 애교섞

인 我田引水적 표현일 뿐이다. 캠퍼스 중앙에서 있는 캠퍼널리탑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둘러 보면 네모반듯한 캠퍼스 서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灣과 금문교, 북쪽으로는 세계 住居양식의 전시장이라고들 하는 버클리언덕의 다양한 모양의 집들이 보인다. 동쪽 언덕에는 이차메진 당시 오픈하이머가 이끌던 원자탄연구의 중심이었고 세계 최초의 粒子가속기(cyclotron)가 설치된 로렌스연구소, 그리고 남쪽으로는 학생생활의 중심가인 텔레그래프街 주변으로 밀집된 상가와 주택들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기후는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서안 해양성기후덕으로 연중 서울의 봄날씨 같아서 학교 건물에도 에어컨이 따로 없고 비는 겨울(?)에만 약간 내릴 뿐이다. 밤낮의 기온차가 여름과 겨울의 평균 기온차보다 오히려 더 커서 가끔 캠퍼스에서 T-셔츠 차림의 학생과 외투 차림의 학생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도 재미있는 풍물이다.

버클리 주변의 풍물은 한마디로 다양하다. 온화한 기후 탓인지 샌프란시스코만 아니라 灣 주변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移民들을 받아들여, 이들을 상대하고 또 함께 살아오면서 예술, 종교, 그리고 음식과 건축 등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마치 東西의 다양한 문화들의 시장처럼 된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무료로 열리는 실내악연주에서부터 켈러바하홀에서 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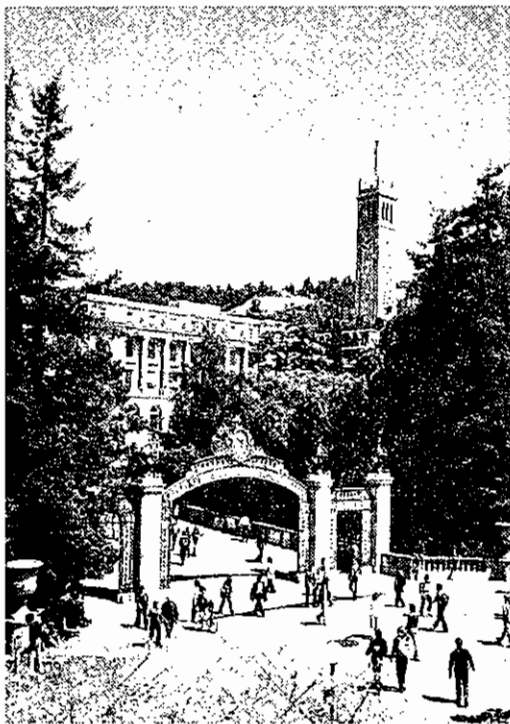
는 교향악 연주회까지, 50년전 히치코크영화에서 부터 무려 7시간짜리 최근작 일본 사무라이영화 까지 상영되는 실험영화관, 이 밖에도 연극, 판 토마임, 제즈, 하다 못해 요기시범 등 온갖 잡 다한 행사들이 길에서, 광장에서, 공원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버클리야말로 다양성의 天國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심코 길을 가다가 이러한 행사들에 끌려들기도 하고 텔레그래프街 주변에 널린 카페나 pub에서 어울리기도 하면서 이 버클리의 다양성을 익힐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버클리대학이 어떻게 오늘의 위치에 이르르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자.

## II. 歷史的 背景

버클리 근방의 샌프란시스코灣 지역은 그 입지조건으로 옛부터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한동안의 스페인 통치를 거쳐 서부 개척 당시 특히 19세기 중반의 노다지 이주(Gold Rush)를 전후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 버클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大學院大學이다.



주로 동부의 기존체제에 불만을 가졌었거나 밀려났던 자들로 구성된 이 移住民들은 샌프란시스코가 金으로 번창하면서 경제력을 가지게 되자 동부의 양키들이 가진 것 같은 대학교육을 원하게 되었고 곧 1868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설립령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버클리기술에 첫 캠퍼스를 열게 되었다.

물론 몇몇 인문학과, 상과, 그리고 (당연히) 광산학과를 포함한 명색이 대학뿐인 소박한 육심으로 출발하였던 이 캠퍼스가 백년 후 하바드를 누르고 미국 제일(이런 싸구려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면)의 대학원대학으로 성장할 줄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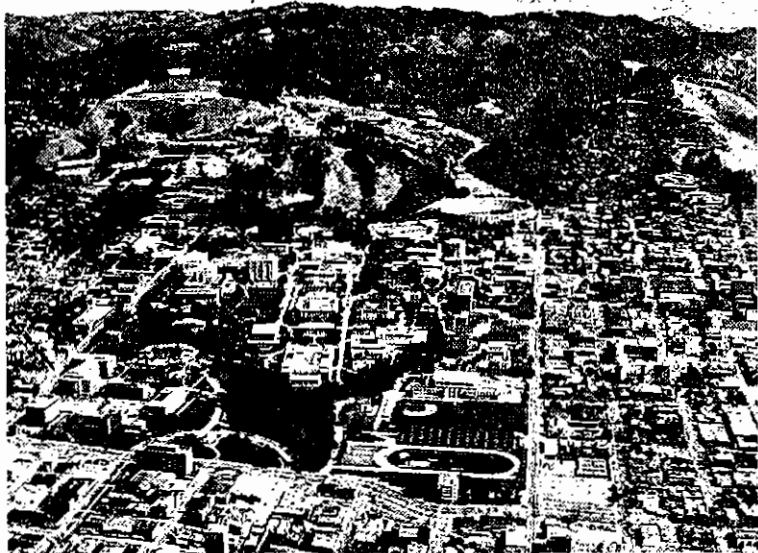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 로스앤젤스에 만든 로스앤젤스분교(U.C.L.A.)를 비롯하여 모두 8개의 캠퍼스가 추가되어 이제는 9개 분교의 멀티버시티(multiversity)라고 불리울 정도로 방대한 대학群이 되었고 버클리분교에만도 학부생 2만명, 대학원생 1만명, 모두 3만명의 학생과 연구원을 제외한 교수진만 3천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다. 학제는 처음에는 가을과 봄학기의 2학기제로 운영되다가 월남전중 경제사정의 악화로 3학기제로 바뀌었고, 작년 즉 1984년 가을부터 新 2학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2학기제란 첫학기가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리고 둘째 학기가 1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운영되는 제도로서 미국내 많은 대학들이 舊 2학기제에 3학기제의 능률적 운용방식을 가미한 이 제도를 택해 가고 있다. 등록금은 年 5천불 정도로(캘리포니아 주민은 1천 5백불 정도) 주립대학으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지만 등록금 수입은 버클리대학 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하여 교직원 봉급을 겨우 메꿀 뿐이며 나머지 80%가 넘는 연구관계 지출은 연방기구와 주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群에는 물론 전체 총장이 있지만 버클리대학은 다른 분교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총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캠퍼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버클리대학의 基本 행정단위는 學科로서, 科에서 대학원생 입학, 교수임용, 교과과정 편성 등의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하며 대학당국은

이러한 결정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 Ⅲ. 文化的 背景

버클리대학의 참 면모는 미국 문화에서 이미 慣用語처럼 되어 버린 '버클리'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실험정신'과 '관용정신'의 복합적 母體로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들은 개교 당시의 서부개척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이비출신들이 지배해 온 동부의 기존체제에 반발하여 서부로 이주한 이주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버클리대학이 이제 아



▲ 天惠의 경관으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 불리우고 있다

이비의 보수적 대학들에 맞서는 진보적 대학의 기수로 자라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진취정신이 처음으로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1964년의 자유발언운동(Free Speech Movement)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학기초 버클리대학 본부건물인 스포라울홀 앞의 광장에 차려 놓은 여러 선전테이블들 중 일부를 대학당국이 선별하여 철거할 권한이 있는가를 묻는 미국 大學史의 첫 데모로서 기록되었다. 주로 보수적 사회과학계열 교수들의 옹호를 얻은 대학당국과 진보적 자연과학계열 교수들의 호응을 얻은 학생들과의 대결은 교수들까지 갈라서서 논쟁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다음 결국 주동자들의 퇴학, 배이블 전시권리 인정이라는 표면적 협상으로 낙착되었지만 이 운동은 이후의 미국의 사회적·정치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집단 퇴학당한 학생들이 모여 살던 텔레그라프街를 중심으로 히피(hippie)운동이 일어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전국의 젊은 세대에 퍼지게 된다. 히피운동은 drug 문화, 개방된 性의 문화와 동일시되어 기성사회의 질서를 받기도 하지만 強者美化, 도덕적 僞善으

로 비치던 기존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 히피들이 내세운 脫體制 자연복귀의 새로운 道敎的 價値觀은 이후 反戰運動, 학생권리운동(student power), 자연보호운동, 녹색당, 反核운동 등의 다양한 운동들의 정신적 배경이 된다. 그 당시 런던, 파리, 스톡홀름 등 유럽 대도시의 지하신문들에는 버클리소식란이 따로 있을 정도로 버클리는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았었고 미국내에서도 '섬'이라고 불리우며 경원당할 정도였다.

'버클리를 없애겠다'는 구호 아래 처음으로 政界에 진출했던 레이건 現 미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은 그 당시 일반의 반응을 잘 대변해 준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버클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교수봉급을 동결시키는 등의 대중 인기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에 막대한 외형적 피해를 입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가장 못 마땅하게 여기던 진보적 이공계열교수들에 힘입어 그가 취임하자마자 행하여진 전술한 대학원 조사에서 버클리가 하바드를 제치게 되고 그는 공치사를 받게 된다. 또 불리한 대우하에서 일반이 예상하던 교수들의 流出(엑소더스)도 일어나지 않았고, 학문적으로 진취적일 수

밖에 없는 순수 이공계통에서는 오히려 교수진이 강화된 것은 버클리 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덕이라고 볼 수 있다.

#### IV. 學問的 背景

버클리는 대학원대학의 전형이다. 1960년대초 미국이 스프트니크의 쇼크에서 일어나 특히 이공방면의 대학원교육에 국력을 쏟으면서 대학교육의 초점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옮겨지고 학부교육보다는 대학원교육이 상대적으로 강한 소위 대학원대학들이 浮上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버클리가 처음 일반에 알려진 것은 앞서 이야기된 자유발언운동에서라기보다는 1966년 미국대학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f Education)에서 처음으로 행한 미국 대학원교육 평가보고서에서 버클리가 하바드를 꺾히고 1위로 부상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뉴스는 그때까지 인문·사회과학은 하바드와 예일, 그리고 자연과학과 공학은 프린스턴과 MIT를 꼽던 미국의 일반대중에게도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특히 화학을 제외한 전 자연과학분야에서 1위를 휩쓴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던 예를 들어 버클리 물리과정으로 유명하던 물리학과는 이미 8명의 노벨상 수상 교수들(당시 소련은 물리학만이 아닌 전 수상분야에서 7명밖에 없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 기존 학계의 아이비신화를 깨뜨린 조사 결과는 4년 후인 1970년 같은 위원회에서 행한 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되었고 대학원교육 특히 이공분야에서의 버클리의 위치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 이후의 유사한 조사에서도 버클리의 대학원교육은 예산 삭감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계속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행하여진 1983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이 된 32분야 중 30분야(2위의 스탠포드는 24분야, 3위의 하바드는 22분야)에서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자로서 가장 영예스런 다 할 수 있는 구겐하임연구상에서도 지

난 20년간 17번이나 가장 많은 수상 교수를 내었다는 사실도 대학원대학으로서의 버클리의 聲價를 다시금 입증해 준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버클리와 스탠포드가 새로운 연구, 교육의 중심으로 부상된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버클리는 이차대전 전후 이미 로렌스연구소를 배경으로 물리, 수학분야에서 강화되고 있었다. 앞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버클리의 문화적 배경은 순수과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受容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이는 1960년대초 시카고대학 자연과학 교수들의 엑소더스의 대부분이 버클리에 자리잡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의 영향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에까지도 침투되어 이론적, 수리적 접근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여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이론치중의 분위기는 버클리를 불러 교수양성을 위한 대학이라고까지 꼬집어 말하게 하였다. 최근의 학문의 경향이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수리적, 계량적 접근의 이해가 없이는 연구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미 이러한 접근방법을 強點으로 지니고 있던 버클리가 새로운 경향에 도움을 받아 부상된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 V. 留學 實態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인 유학은 1970년 중반까지는 50~60명선을 오르내리다가 1970년 중반부터 향상된 국내 경제력에 힘입어 자비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는 거의 170명의 대학원생을 헤아리고 있다(이민, 교포 2세 포함).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던 학부생들도 1970년대 중반부터 교포 2세와 이민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함에 따라 이제는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버클리가 대학원교육 중심의 학교이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 사립대학인 스탠포드의 십분의 일 정도의 등록금만 내고도 훌륭한 교수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교포나 이민들의 자제들이 학부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

나 버클리에는 어디까지나 대학원대학이니 만큼 대학원 유학생에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버클리의 문화적 특성과 주립대학으로서의 특성이다.

먼저 언급되어야 할 점은, 다양한 버클리문화는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더 폭넓게 사물을 이해하도록 신속시켜 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획일된 안목을 갖도록 교육받아 온 우리들을 혼란시키고 방황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른 대학들의 문화가 기존체제를 움직이는 가치관을 강조하여 안전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과 비교하여 음미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버클리의 극도로 자율적인 분위기는 대학원교육에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어시험이 없어졌고 대학원 과목들도 필수과목의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심지어는 많은 과목들에 성적제도를 없애고 통과여부만 기록하도록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 분위기는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만 비교적 타율적 교육을 받아 온 유학생들은 자칫 자기의 일과 성과를 제어 주는 도구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 그리고 아무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아래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같은 서부의 대학이라도 사립인 스탠포

드와는 달리 대학 예산의 80%를 주정부나 연방기구의 보조에 의존하는 관계로 버클리교수들의 가장 큰 명제는 연구이다. 이렇게 때문에 대학생들이 교수 자신의 연구분야에 흥미를 느껴 찾아오면 지도를 해 주기는 하지만 교수 자신이 학생을 찾아나서 지도를 자청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이 지도를 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못 찾아 십년이 넘은 직업대학원생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립대학으로서의 그리고 자율적 대학으로서의 버클리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미과학재단 장학금 수여자의 수로 본다면) 받아들이며서도 박사학위 취득기간이 가장 긴 것도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학원 대학으로서의 버클리대학이 유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하나의 주관적 관점일 따름이다. 캘리포니아의 태양을, 서부의 진취적 개척정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성의 위협에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면 버클리야말로 그에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